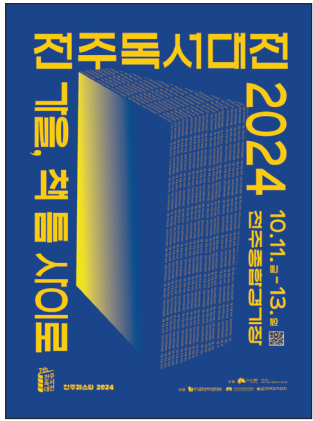


'가을, 책 틈 사이로' 전주독서대전

시, 11~13일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서 72개 프로그램 진행... 가을 나들이처럼 즐거운 책 축제로 기획

책의 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독서문화축제인 '제7회 전주독서대전'이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전주시에 따르면 '가을, 책 틈 사이로'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전주독서대전은 전주지역 독서생태계를 구성하는 60여 개의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독서문화 축제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색다른 볼거리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준비될 예정이다.



전주독서대전 포스터

올해 전주독서대전의 특징은 지난 전주독서대전 역사상 처음으로 장소를 옮겨 한층 활기를 더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 이는 전주시민들의 추억이 간직된 전주종합경기장으로 축제장을 옮겨 시민들과 관광객이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에서 나들이하듯 가족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페스타 2024'와의 연계를 통해 '국제한지산업대전'과 같은 기간에 통합축제로 개최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기존 독서대전과 비교해 독서의 문턱을 낮추고 축제로서의 성격을 강화했다.

여기에 기존의 에코백을 활용한 나눔 부스를 운영하는 등 시민과 만들어 가는 친환경 축제를 지향하고, 긴급상황 및 기상변화에 따른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안전한 축제를 만들기로 했다.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초청 강연인 '작가의 책 틈' 프로그램에서는 연령대별 관심사를 반영해 순수문학 작가뿐 아니라 장르문학, 에세이, 환경, 전주 문인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자가 초청됐다. 구체적으로 △이주혜

작가의 '책 읽기와 일기 쓰기' △조예은 작가의 '소설 속 현실과 환상' △김중혁 작가의 '에세이 쓰기' △김동식 작가의 '소설 쓰기' △김금희 작가의 '소설에 등장하는 조연들' △이소연 작가의 '우리 시대의 의생활'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이 예정돼 있다. 또, '전주의 책 틈'에서는 전주지역 문인인 이승훈 작가와 이준호 작가가 강연을 맡는다.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은 풍선 아트 공연과 비눗방울 공연, 솜사탕 공연이 준비돼 있으며, 어린이 독후활동 대회와 가족 독서 폴던벨, 어린이 동화구연 대회 등 경연 대회를 통해 독서 지식을 겨루고 창의력을 뽐내는 시간도 마련된다.

여기에, 올해 독서대전에서는 △12개의 별자리의 특성 및 추천 도서 전시 △나의 강점과 약점을 표현하는 글감으로 책을 만드는 체험 전시 △전주 콘텐츠 전시 등의 특별전시를 만날 수 있으며, △인생 최고의 책을 소개하는 전시 △전주독서대전 시민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 시민 참여 전시도 예정돼 있다. 또, 연계 전시로 주제별 잡지 전시를 선보인다.

올해 전주독서대전에서는 또 30곳의 전주지역 서점과 동네 책방, 전국 출판사가 운영하는 북마켓과 6개의 독서

단체에서 준비한 다양각색 체험 부스가 전주종합경기장 야외마당을 채우게 된다. 또, 탐방가와 함께 전주 책 문화 공간을 걷는 '전주 도서관의 틈', 도서관 여행해설사와 여행 버스를 타고 도서관을 여행하는 '전주도서관 여행'이 행사장 밖에서도 전주독서대전의 여운을 이어간다.

이외에도 △사용하지 않는 에코백을 기증받아 재나눔하는 자원순환 체험 △미니게임 스탬프투어와 볼렛 이벤트 △전주독서대전 관련 도서가 비치된 실내 워터 △책 나눔 부스 △팝업스토어 등도 만날 수 있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바쁜 일상에서 틈을 내어 책과 함께하는 시간은 내면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며, 올해 전주독서대전은 독서문화 축제라는 본질을 지키면서도 가족들과 나들이하듯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즐거운 축제를 만들려 한다"면서 "풍요로운 가을날, 책을 매개로 소통을 나누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한마음으로 화합하는 책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7회 전주독서대전에 대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www.jbook.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30-1858)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 장애인콜택시 '이지콜' 차량

전주시시설공단,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이지콜' 5대 증차·4대 교체 등 이용자 편의 향상 기대

전주시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장애인콜택시 운행 대수 확대로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에 나섰다.

공단은 '이지콜' 장애인 콜택시 5대를 추가로 배치해 운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공단은 또 노후 차량 4대를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새 차로 교체해 운행한다.

이들 총 9대의 차량에는 전동휠체어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어 탑승객의 편의가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

또 늘어난 차량만큼 배차 간격도 줄어드는 등 교통약자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증차로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특장차량은 총 63대로 늘었다.

비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임차 택시 25대와 순환버스인 어울림 버스 4대를 합하면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한 차량은 총 92대에 달한다.

이연상 이사장은 "이번 증차 등으로 교통약자 이용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지콜'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차량을 증차하고 또 노후 차량을 교체함으로써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배회곤 완산구청장, 호자동 공항버스 정류소 현장점검

배회곤 완산구청장은 전주공항리무진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안전사고를 대비하고자 호자동 공항버스 정류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공항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 편의 및 안전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여행용 가방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의 노면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키로 했다.

배회곤 완산구청장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등의 안전성을 꼼꼼하게 점검해 공항 버스를 안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1회용품 없는 조직문화 만들기' 약속

전주시-국립전주박물관, 업무협약 체결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이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1회용품 없는 조직문화를 만들기로 했다.

전주시와 국립전주박물관은 8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박경도 관장 등 양 기관 관계자 2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회용품 없는 조직문화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국립전주박물관은 △각종 회의·행사 진행 시 다회용기 사용 △청사 출입시 1회용품 반입 제한 △사무용품 구매시 재활용제품 이용 등을 실천하기로 약속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국립전주박물관에 '1회용품 없는 기관'임을 인증하는 인증서를 전달했다.

또한 시는 이날 국립전주박물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줄이기'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했다. 또, 1회용품을 이용한 자원순환 체험교육 등도 함께 이뤄졌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을 시작으로 그동안 △전주완산·덕진소방서 △전주MBC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북개발공사 △한국은행 전북본부와 △JTV 전주방송과 1회용품 없는 조직문화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박경도 국립전주박물관장은 "1회용품 감량으로 미래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1회용품 줄이기를 유도하기 위해 솔선수범하고, 직원들과 함께 1회용품 감량에 참여해 환경보호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시장은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 시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동참을 약속하신 박경도 관장을 비롯한 국립전주박물관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생활 속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문화가 전주시 전체에 확산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회용품 없는 조직문화 만들기 릴레이 협약에 관심 있는 전주지역 기관 또는 단체는 전주시 청소지원과(063-281-8402)로 문의하면 참여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장협의회 감사 선출



전주시의회는 지난 8일 남관우 의장(사진)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장협의회(시군구의장협의회) 감사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군구의회장협의회는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열린 시도대표 회의에서 김현기 회장(충북 청주시의회)과 이상주(전남 신안군의회) 수석 부회장, 박현철 감사(부산진구의회) 등과 함께 임원으로 선출했다.

시군구의회장협의회는 전국 2,988명의 자치 시·군·구의회 의원 중 의장으로 선출된 226명으로 구성돼 각 지역 현안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축! 전주매일 창간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김제시의회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